

지역 대형마트, 여름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섰다. 이마트는 제철 과일과 육류, 와인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홈플러스는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로 여름철 신선 먹거리를 파격가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프리미엄 한우 마블나인을 비롯해 국산 수산물, 생필품까지 할인폭을 키웠다. 먼저 이마트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제철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제철 과일인 신비복숭아(5~9일)는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천원을 할인해 판매한다. 이마트는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당도가 높아 인기가 높은 품목이라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우는 ‘팔공상강한우(냉장)’ 전품목, 수입육은 ‘자유방목 블랙앵거스(호주산/냉장)’ 전품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30%, 40% 할인해 제공한다.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은 백돼지, 금한돈,

이마트, 신비복숭아·육류·와인 특가 홈플러스, 여름 대표 신선식품 할인 롯데마트, 마블나인·장어 40% 저렴 우리흑돈 등 다양한 품종을 각각 100g당 2천원대에 선보인다. 무항생제 닭볶음탕, 불타는 안주 시리즈 등은 중복 할인 가능하며 와인 400여종을 대상으로 한 클리어런스 행사도 눈에 띈다. 일부 품목은 삼성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되며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하이네켄 노알콜 등 7종 노알콜 맥주 1+1, 글라스락 보관용기 50% 할인, 크리넥스 3겹화장지 1+1 행사 등 생필품 혜택도 다양하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여름 대표 먹거리를 대폭 할인하는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주말 한정으로 ‘산지 그대로 당도선별 수박’



모델이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에서 신선한 여름 제철 과일과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을 7kg 1만3천900원, 8kg 1만4천900원에 판매하며 ‘수박 전 품목’은 5천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비복숭아(800g), 유명산지 천도복숭아(1.2kg), 워싱턴 체리(450g)는 각 8천900원에 판매된다.

‘완도 전복’ 전 품목은 50%, 미국산 소고기는 최대 40% 할인되며 훈제오리(500g)는 1+1 혜택이 주어진다. 주말에는 ‘토요일! 토요일은 홈플러스’라는 기획전도 연다. 다다기요이(5입)를 2천900원에,

닭볶음탕용 닭(1.2kg)은 6천500원에 제공한다. 특히 21일 단 하루, 7대 카드 결제 시 대란 30구는 1인 1판 한정으로 6천800원에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롯데드페스티벌’ 3단계 일환으로 오는 22일까지 마블나인 1++(9등급) 한우 전품목을 LPOINT 회원에게 40% 할인한다. 대표 품목은 마블나인 등심, 국거리, 불고기(각 100g/냉장) 등이며 애호박은 2개 이상 구매 시 500원 할인, 비빔면 전품목은 행사카드로 2개 이상 결제 시 40% 할인된다. 신선식품 할인도 대폭 강화됐다. 천도복숭아와 신비복숭아 전품목은 50% 할인, 수박 전품목은 1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산 척아이를·부채살·살치살은 각 100g당 40% 할인, 손질 민물장어·국산 문어도 정사가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생필품은 세계맥주 10종, 스낵·파이류 11종, 하기사 지저귀 36종, 세제류 14종, 유한김발리 생리대·물티슈 등 49종이 골라담기 및 반값 혜택으로 제공된다. /정은솔 기자

롯데百 광주점, 소방관 초청 ‘시네마테이’ 진행

호국보훈의 달 기념 동부소방공무원 초청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소방대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네마테이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롯데시네마광주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화재예방 및 인명 구조에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가족 50여명은 영화 ‘하이

파이브’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소방대원 초청 시네마테이는 오는 21일 한차례 더 진행 될 예정이다. 김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양한 지역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사롯데봉사단, 금곡마을 포도농가 방문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19일 “최근 광주시 북구 금곡마을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사롯데봉사단 30여명은 이날 2천200㎡(약 700평)의 포도밭에 심어진 나무 500여 그루에 포도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포도 봉지 씌우기는 포도를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해 품질 좋은 포도 생산을 위한 필수 작업이다. 행사에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범농협 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과 광주교통공사 임직원도 일손을 함께 보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지난 2018년부터 본랑농협, 광주농협과 협력해 포도·매실·감·농가 등 지역 농가의 일손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정은솔 기자

광주신세계, 해외 빈티지 ‘비바무역’ 팝업스토어 오픈

폴로·버버리·타미힐피커 등 최대 50%

(주)광주신세계가 지난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해외 직수입 빈티지 ‘비바무역’ 팝업스토어를 열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19일 “오는 7월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비바무역 대형 팝업을 연다”고 밝혔다. 비바무역은 남양주에 위치한 창고형 빈티지숍 브랜드로 스트리트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다양한 중고의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판매한다. 참여 브랜드는 폴로랄프로렌, 타미힐피커, 리바이스, 나이키, 켈빈클라인, 디올, 모스키노, 겐조, 버버리, 막스마라 등이다.

폴로랄프로렌 셔츠/니트, 버버리, 막스마라 등 기본 가격대가 5만원대부터 시작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사 도중에는 물량을 추가로 투입했을만큼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더 큰 혜택을 마련했다. 팝업 시작 후 22일까지 총 3일 간 비바무역 입장 고객을 대상으로 비바매어 키링을 선착순 증정한다. 같은 기간 50% 할인 특가존을 운영해 특가상품으로 타미힐피커 셔츠를 1만9천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팝업 기간 동안 진행되는 ‘3+1’ 프로모션은 총 4

개를 한번에 구매하면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 1개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10/30/5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빈티지 스카프, USA 티셔츠, 스톱툼블러를 증정한다. 특히 27일부터 29일까지 비바무역, 플레이스 팟(구 신관) 10만원 이상 합산 구매고객 대상 7% 리워드도 증정할 예정이다. 신백리워드는 지하 1층 본관과 플레이스 팟 연결통로 사은행사에서 적립 가능하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Z세대에게 인기가 좋은 비바무역 팝업스토어를 준비했다”며 “이번 팝업 기간동안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해외직수입 빈티지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지난해 진행된 비바무역 팝업스토어에 고객들이 북적이는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